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 읽기와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 폭력과 통제의 공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

박우영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I. 한국 사회 내 공간 읽기 작업: 몇 가지 질문들

II. 사회의 공간구조를 읽어내기 위한 비판적 안내들

1. 왜 공간 읽기인가?
2. 세계 속 관계 재설정 작업과 공간 읽기
3. 하나의 지배적 가치구조: 도구적 패러다임과 공간 읽기

III.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관계 재설정과 자기비판적 척도

IV. 실제 공간 읽기와 기독교윤리학적 시각

1.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 모순 읽기: 학교 공간과의 상호 연관성
2. 기독교윤리학적 시각과 교회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V. 전망적 결론: 용법의 변화와 관계 재설정

• ABSTRACT •

A Critical Reading of Korean Church as a Space and a Process of Creating Cracks: A Christian Ethical Study on a Space of Violence and Control

Park, Woo-Young

We can easily find some spaces that strengthen instrumental effectiveness rather than human dignity, 'success myths' of capitalism, and hierarchical social orders in Korea. When we try to critically read multiple and deep contradictions of these spaces, we could make some chasms in them and differently arrange and create new types of spaces. For spaces could make a great effect on those who live there in terms of their ways of life and knowledge. If we mainly experience some spaces that make us accept one-sided and uniformed ways of life, it can be a space of control and violence in our lives. Henri Lefebvre defines space as a product that does not mean just an object but a globality, that is, a second environment. It means that a space as a product can function as a context for another process of space-making. And it can be related to opening a reciprocal relationship in new spaces. For him, thus, space is not only a product but also a productive action itself. Space is not just a space of control and violence but also a dynamic space for solidarity, communication, and even deterritorialization when different and heterogeneous components are connected to pre-existed spaces. And space also includes bodies inside itself. They can be moral agents who can raise critical questions inside the spaces and make new movements toward a more humane society. Their critical reading of spaces can reposition different relationships around themselves and reset themselves in the world as a process of being in the world by being against 'device paradigm' and continually making self-criticism based on their moral communities. All these processes are based on a theological concept of church as a cosmic body of Christ or as an earth community. When church can be a communal source for a

resistance against social evils that make a humane life impossible, church can be claimed as a 'sacred space.' The point is not about space as a being but as a change of usage of it. That will be a continual process of making new relations in the church.

Key words: space, Henri Lefebvre, relationship, device paradigm, earth community, church

I. 한국 사회 내 공간 읽기 작업: 몇 가지 질문들

한국 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들은 그저 물리적 구획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양한 공간들이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주체들의 삶의 방식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기존의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천과 깊이 연관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한국사회의 공간구조들을 읽어가려는 관심은 한국사회의 공간구조들을 모두 다 분석하고 설명해내려는 작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모순들을 조금이라도 읽어내고 지적해냄으로써 그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와는 다른 배치를 사고해 보고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한 사회는 그 사회의 독특한 공간들을 생산해 내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형성된 공간들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이들의 삶의 양식과 사고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마크 테일러 (Mark C. Taylor)에 따르면, 보다 관심해야 할 것은 삶의 공간들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변화와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와 상호작용이 한층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¹⁾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공간 구조를 통해 비판적으로 제기할 수 문제점들, 즉 왜곡된 인식과 삶의 방식들은 무엇일까?

첫째, 천선영 경북대 교수는 <병원장례식장, 그 기이하고도 편안한 동거> 라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병원과 장례식장의 공간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죽음은 환자들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병원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인데, 어떻게 병원과 장례식

1) Mark C. Taylor, *The Moment of Complexity: Emerging Network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3.

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 천 교수의 대답은 병원과 장례식장이 붙어있으므로 얻는 것은 편리성, 즉 효율성의 구조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공간배치에 어떠한 상징적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²⁾ 여기서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공간의 결합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론적 과정 없이 이 결합이 수용되었다는 점이며, 우리 사회가 철저히 도구적 효율성에 의해서 자기성찰적 과정을 결핍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도구적 효율성과 편리성이 삶의 의미와 죽음의 존엄성을 은폐하거나 가리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자기목적성이 성취되지 않은 실패, 즉 죽음이란 사건이 그 즉시 장례식장이라고 구획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적 성공의 신화에 길들여진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세대들이 모여 사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중심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치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최고 사설학원가 및 전문입시교육기관들의 공존, 목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사교육 기관들의 공존은 과연 우연히 발생된 단순한 공간구조일까? 자본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부동산 투기지역과 지속적인 성공의 신화를 유지시켜 줄 명문대 신화가 결합되어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신화적 공간'³⁾

2) '병원과 장례식장의 동거, 편리성만 있을 뿐 죽음에 대한 존엄은 없다, 경향신문 2012년 10월 23일 참고.

3)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서울: 현대미학사, 1995), 48.

: "여기에서 우리는 신화의 근본원칙에 도달한다. 즉 신화는 역사를 자연화한다... 신화적인 뼈대를 발화시키는 신화의 원인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난다. 하지만 신화의 원인은 즉각 자연적인 것으로 동결된다. 이제 원인은 동기(mobile)로서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raison)로서 읽힌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신화는 역사를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이야기 구조이다. 한국사회 내 자본집약적 아파트문화와 입시중심의 문화가 결합되는 지점은 성공의 신화가 자연이란 불변의 구조로 편입되는 지점이다.

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있는 기성세대 뿐 아니라, 바로 그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과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 모두 입 밖으로 실패를 말하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공간에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성공을 의미하는 공간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최근 수백억 원 대의 부도난 교회의 건물이 경매에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는 대형화⁵⁾된 공간을 지향하고, 그 대형 공간이 가지게 될 의미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장이 되기 쉽고, 또한 저항과 변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남과 비강남, 신도시 아파트촌과 기존의 주택촌, 수도권과 지방 등의 위계적 공간 배치처럼, 교회의 대형화된 공간구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위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부딪히는 공간구조들이 우리에게 위계적 질서에 순응하고, 규정된 삶에 따라 통제된 삶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매우 폭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교회가 돈의 지배를 받다', 시사저널 2013년 7월 17일 참고: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77>

2013년 7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판교의 충성교회가 526원에 경매가로 등장했는데, 이는 종교시설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었다. 2010년 판교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신도의 수의 증가를 예측하며 은행 돈으로 교회를 신축했다.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로 연면적 2만5980㎡(7859평)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이다. 이러한 외적 성장을 기대하며 공간적 팽창과 확대를 꾀했던 산업성장 시대의 계획이 무너진 대표적 예로 기록될 듯하다.

5) Alejandro Colas, *Empire: Key Concepts* (London, Cambridge: Polity Press, 2007), 6. : 콜라스는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을 확장(expansion)으로 여기는데, 한국교회의 대형화와 성장 중심주의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공유해왔던 제국주의적 속성과 연관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적 의미를 읽어내기 위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사회 공간구조를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판적 안내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믿음과 가치, 교회 공동체적 실천의 구조가 이러한 사회의 지배적 공간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구조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려 하고, 한국 교회가 새로운 공간의 창출로서 관계의 재설정 작업에 참여해야할 방향성을 생각해 보려한다. 교회가 갖는 실천적 가능성을 당위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현재의 교회라는 공간구조가 정당화해 온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냄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시도일 것이다.

II. 사회의 공간구조를 읽어내기 위한 비판적 안내들

1. 왜 공간 읽기인가?

프랑스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을 자연이나 문화의 단순한 변형이라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물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는 시간과 역사 속에 위치한 생산물로서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그러나, 생산물이라고 이해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대상이나 사물로서의 생산물이 아니라, “이차적 자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산물이다. 독특한 사회적 콘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생산물로서의 공간은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콘텍스트를 제공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르페브르는 공간이 사물이나 대상으로서의 생산물

6)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서울: 예코리브르, 2011), 27.

과 다른 점은 공간이 “총체성”⁷⁾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총체성은 전체성(totality)으로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과 생산물의 콘텍스트로서의 총합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구조로서의 공간은 다시금 또 다른 공간 구조와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일으켜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동방신학자 데이비드 툴란(David Toolan)의 세상에 관한 이해를 빌려 보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툴란은 일차적 자연의 신성함을 성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이차적 의미의 성례주의적 세상,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적 자율성에 의해 다시금 형성되는 자연과 문화의 변형을 이차적 영역으로 이해한다.⁸⁾ 그리고, 단지 주어진 신성함의 영역을 넘어서서, 책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신성한 삶과 문화의 영역들이 상호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르페브르가 공간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공간이 단지 구조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삶을 재단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르페브르는 콘텍스트로서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변형과 응답이 가능한 공간구조를 열어두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이 자연과 문화의 창조적 변형으로서의 생산물이라고 이해할 때, 르페브르는 각각의 사회는 각각의 특징적인 공간을 생산한다고 이해한다. 생산물로서의 공간은 “관계의 집합”⁹⁾으로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관계의 집합이란 개념을 통해서 공간은 생산과 생산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인 상호관계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7) 르페브르, 28.

8) David Toolan, *At Home in the Cosmo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1), 19-20.

9) 르페브르, 27.

생산물로서, 상호작용 또는 반작용에 의해서 공간은 생산 자체에 개입한다. 즉 생산적 노동의 조직, 이동, 원자재와 에너지의 흐름, 생산물의 유통망 등에 개입하는 것이다. 공간은 (잘 조직되었건, 잘못 조직되었건) 나름대로의 생산적인 방식, 생산자로서의 방식으로 생산의 관계 속으로, 생산력 속으로 개입한다.¹⁰⁾

이는 공간의 새로운 생산과 산출이 새로운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관계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공간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간적 실천’이다.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상대적인 응집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사회적 훈련 각각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간의 총체’¹¹⁾를 모두 의미한다. 사회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구성원이 맺는 관계성과 그 관계성을 기초로 한 실제적인 실천의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삶이 구조화되는 측면을 의미한다. 둘째, ‘공간 재현’이다. 생산관계가 부여하는 질서와 관계가 있으며, 인지된 공간을 의미한다. 르페브르는 공간 재현을 설명할 때, 학자, 계획수립자들, 도시계획가들, ‘구획짓고’ ‘배열하는’ 기술관료들, 체험된 것과 지각된 것을 인지된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과학성을 추구하는 일부 예술가들의 공간이라고 지적한다.¹²⁾ 이러한 설명에서 관심해야 할 것은 공간 재현에 있어서 강조점은 기존사회의 질서를 체계화, 합리화, 정당화 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기존의 생산관계와 질서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재현 공간’이다. 재현 공간은 “이미

10) 르페브르, 27.

11) 르페브르, 80.

12) 르페브르, 87.

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 즉 ‘주민들’, ‘사용자들’, 그리고 몇몇 예술가들, 기술하는 자, 아니 단지 기술한다고 생각만 하는 자들, 즉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공간”¹³⁾이다. 이러한 공간은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가치, 거대 담론이 주도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의 지배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다. 재현 공간은 공간에 관해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활동보다도, 재단되어지고 상징화, 이미지화된 공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황적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공간에 관한 개념적, 분석적 이해는 공간이 내포하는 지각적, 인지적, 체험적 측면이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상호작용함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공간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위치를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할 때,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 공간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공간이 무엇과 연관되어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관계성 안에서의 작용의 실재와 용법이 공간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 늘 동일한 작용과 용법으로 공간이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연관된 관계가 달라지고, 연결된 이질적 공간과의 관계가 설정될 때,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영토성’과 ‘탈영토화’, ‘재영토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점과 일치한다.¹⁴⁾ 그렇다면, 공간생산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단지 자본의 흐름과 자본이 이루어가는 구역화와 탈구역화 외에도 그 사회와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의 구조가 공간생산에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작은 교회들과 작은 시민단체들로 대표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새로운

13) 르페브르, 87-88.

14) 이진경, 『근대적 시 · 공간의 탄생』(서울: 그린비, 2010), 125.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자본 지배적 삶의 가치가 아닌 인간의 기본가치의 실현에 충실한 실천들을 통해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생산물이며, 더 나아가 생산작용 자체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간은 단순히 지배와 통제만의 공간이 될 수 없으며, 연대와 소통, 기존의 구획을 가로지르고 재영토화 또는 탈영토화의 작업이 일어나는 역설적 장이 된다. 르페브르의 공간 이해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 내 도시 공간은 주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관계를 반영한다. 그와 동시에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축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심층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체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간 구성이 집약된 도시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형태와 관계의 공간구성의 변혁적 실천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변혁적 공간과 억압적 공간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상호 스며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간 재현’은 인지된 공간으로서 지배적 질서를 대변하는 듯하지만, 부족하나마 객관적 공간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재현 공간’은 상징들과 이미지들과 함께 형성되는 체험공간이지만,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기능 이외에도 대안적 상징과 이미지들이 끼어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갖추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공간들은 심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내려는 시도보다,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성을 읽어내는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국지적인 공간으로서의 일상과 총체적 공간으로서의 전체와의 분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

본의 집약적 축적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의 도시 공간 이해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라는 전체적 공간 이해와 분리되어 파악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운동도 총체적 공간 이해의 관계성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르페브르가 공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는 공간적 신체, 다시 말해서 육체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공간의 의미를 중요시했다. 공간적 신체란 개념은 명료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7-18세기 프랑스 궁정 귀족의 ‘오텔’ 내에서는 ‘시빌리테’라고 불리는 매우 체계적으로 정교히 발전된 매너와 그 매너에 따라 익숙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적 이해가 존재했다. “매너화된 신체는 궁정적 공간의 생산물이자 어떤 공간을 궁정적 공간으로 생산한다”¹⁵⁾고 볼 수 있다. 공간적 신체는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그 공간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설명해야 할 것은 공간과 공간적 신체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공간이란 그 공간의 작용과 용법을 위해 공간적 신체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라든가 병원은 교사와 의료진과 그와 연관된 직원들을 학교와 병원이라는 공간 가운데 공간적 신체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나 환자들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특정한 공간 내 신체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 또한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만¹⁶⁾, 공간의 작용과 용법이 어떻게 변형되어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지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변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응답적 존재로서의 도덕적 주체들이 공간적 신체로, 또한 공간 내 신체

15) 이진경, 135.

16) 이진경, 136-137.

로 자신이 속한 공간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또한 그 특정한 공간을 넘어선 공간들과 연결되고, 전체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재배치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윤리적인 가치와 실천의 문제와 직결된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이란, “삶이 조직되는 구체적 형식이고, 경험과 사유의 구체적인 기초가 되는 지반”¹⁷⁾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 세계 속 관계 재설정 작업과 공간 읽기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그에 따른 도덕적이며 책임적 응답을 가능하게 하며, 책임적 응답으로서의 실천이 임의적인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르지 않고, 실제적인 인간의 기본가치에 따라 책임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을 이루게 한다. 그렇기에 사회적인 관계의 그물망을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작업은 신학적으로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이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지배적 가치와 담론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연관된다. 또한 이 작업은 고정되고 완결된 형태의 기존의 규정된 관계망들을 읽어낸다는 의미보다는, 그와 반대로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삶의 정도가 위치 지어놓은 연결 지점들을 읽어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레미 크램프톤(Jeremy W. Crampton)은 이러한 관계망을 읽어가는 작업을 ‘지도 그리기 작업’(a mapping work)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작업은 대상으로 여겨지는 최종산물로서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의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계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

17) 이진경, 29.

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¹⁸⁾ 삶의 정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현 위치와 관계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적극적으로 위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적 영토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이자 저항이며,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가치의 실제적 실천과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삶의 지형을 정확히 읽어내고, 거꾸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관계 재설정 작업이야말로, 르페브르가 말하는 모순적 공간을 대안적인 저항 공간으로 재배치시키는 작업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 르페브르가 파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역들이 서열화된 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그 이전의 해외 식민지들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내부에 식민지를 확산¹⁹⁾시키는 과정을 언급하였다.

오늘날 지배계급들은 공간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들에게 공간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수단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목적이란 노동자 계급을 분산시켜 이들을 지정된 장소로 적당히 배분하며, 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제도적인 규정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 요컨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공

18) Jeremy W. Crampton,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101-104.

19) 노대명,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통권 제 14호*, 2000: 52.

: 내부 식민화 과정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탈구역화와 구역화의 운동 속에 내재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한국 내 부동산투기가 수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980년대 지속되었던 것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

간을 권력에 복종시키고, 사회 전체를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²⁰⁾

르페브르의 비판적 공간 이해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공간 이해에 실제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은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지배적 공간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닥의 가치 패러다임, 소위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

3. 하나의 지배적 가치구조: 도구적 패러다임과 공간 읽기

르페브르의 비판적 공간 구조를 읽고, 새로운 관계설정 작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해 나간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현대 과학기술 사회, 자본집약적 세계화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배적 사고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배적 패러다임이 규정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읽어낼 수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철학적 이해를 추구해 왔던 알버트 보르그만(Albert Borgmann)은 지금의 자본집약적 기술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으로서 “도구적 패러다임”²¹⁾ (device paradigm)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콘텍스트를 지워버렸다고 강조한다.²²⁾

이진경 교수에 따르면, 근대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콘텍스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20) 르페브르, 17 에서 재인용.

21) Albert Borgman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A Philosophical Inquir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40.

22) Borgmann, 51.

획일적 삶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²³⁾ 예를 들면, 근대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간을 공장노동자들이 출근하여 생산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퇴근할 수 있는 시간으로만 구분할 뿐이며, 개개인의 노동자들의 삶의 콘텍스트는 이러한 획일적 시간의 구분을 넘어서서 강조되기 어렵게 되었다.

구체적인 콘텍스트를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도구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는 과학기술은 그것의 강조점을 상품에 두고 있다. 보르그만이 말하고 있는 상품이란 상업적 삶의 방식, 즉 도구들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상업적 삶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²⁴⁾ 도구적 패러다임을 통해 상업적 삶의 방식이 강조되면서 인간해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도구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인간해방이란 이 세상의 일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단지짐을 털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사용가능한 상품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삶의 방식만이 오로지 하나의 지배적인 덕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보르그만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면, “소비한다는 것은 분리된 개체를 아무 준비된 마음 없이, 아무 중요한 의미 없이, 그리고 그 사용한 이후의 결과에 거리낌 없이 그저 다 써버리는 것이다.”²⁵⁾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측면에서 관계성을 바라볼 때,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된 마음도 없이, 그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함도 없이, 그 관계를 맺고 누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점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 내 타자는 언제나 얼굴 없는 타자로 존재해야 하며, 특정 공간 내 신체로서의 타자는 수동적으로 공간의 지배적 영향을

23) 이진경, 26-27.

24) Borgmann, 42.

25) Borgmann, 51.

받는 익명적 타자로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구적 패러다임이 강화되면 될수록, 책임적 관계성은 사라지고, 소비자로서의 주체만 남는 관계의 파편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구적 패러다임 안에서 익명적 타자는 익명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예를 든다면, ‘아일랜드’²⁶⁾라는 영화 한 편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지구 미래의 한 시점, 인간의 생명복제가 현실화된 때에 영화 속 주인공은 격리된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그 격리된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종 받는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들로부터 늘 받아오는 교육은 지구가 오염되어 이곳에 선택된 자들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 바로 이 격리된 공간이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꿈은 아직 지구 내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하나의 아일랜드로 가서 살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격리된 공간 내 사람들은 유전복제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품, 즉 상품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상품을 요청한 주문자들은 단순히 유전복제를 통해 자신들의 불치병을 치료할 방법이나 자신의 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것이지, 자신과 동일한 모습의 또 다른 존재가 복제되어 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복제된 인간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이 복제된 인간임을 알게 된 후, 격리공간을 탈출해 자신을 주문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 자신이 단지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영화는 복제된 인간이 그저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관계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상업적 삶의 방식이 공간의 격리와 통제와 결합하여

26) 마이클 베이 감독, 이완 맥그리거,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로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복제된 인간의 익명성과 공간적 격리, 과연 누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5년 작)

수동적 공간 내 신체를 만들어내고, 상품으로서의 공간 내 신체는 철저히 삶의 콘텍스트가 지워진 채 소비되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있다. 한 인간의 콘텍스트와 한 공동체의 콘텍스트가 지워질 수 있다고 할 때, 익명성의 확대는 공간의 격리와 통제, 공간 내 신체를 수동적인 삶으로 이끌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미지들을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관계 재설정과 자기비판적 척도

앞서 살펴본 도구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그 사회 일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있어서 거의 어떠한 여지도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구적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많은 효율적 선택의 기회들과 힘(권력)과의 연관관계가 강화됨으로 인해 그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적 선택을 하도록 돕기보다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그저 남겨두기 때문이다. 자본집약적 현대 기술사회에서 소비할 능력을 갖춘 개인과 공동체인지, 아니면 공간 내 신체로서 수동적 순응에 잘 길들여져 있는가 하는 조건들이 중요해지는 것은 근대과학 기술이 강화시켜 놓은 도구적 패러다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해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라스무센(Larry L. Rasmussen)은 도덕적 성품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어떠한 공동체, 그리고 어떠한 사회를 장차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지에 대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가치와 믿음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공유되어진 가치와 믿음에 근거하여 실천해 온 역사, 보다 구체적으로

는 공유되어진 역사적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²⁷⁾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와 목적이 한 공간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점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스무센은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가치와 목적들을 실천해 나갈 ‘도덕적 주체들’(moral agents)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과 차이들이 그 속에서 표현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사회인식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응답의 가능성들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도덕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여기서 라스무센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들의 형성과정은 매우 지속적인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공존하고, 새로운 사회인식과 응답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지속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 재설정이란 차원에서 다양한 공간의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능동적인 ‘공간 내 신체 또는 공간적 신체’로서의 도덕적 주체, 즉 지배적 공간의 질서와 규율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체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된 믿음과 가치, 공동체 속의 도덕적 주체들이 실제로 실천해 나갈 사회적 관계망,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제도들과 채널들, 실제적인 구조들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라스무센은 강조한다. 이를 통해서, 공유되어진 믿음과 가치, 이를 실천

27) Bruce C. Birch and Larry L. Rasmussen, *Bible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120-126.

28) Birch and Rasmussen, 133-138.

했던 공동체 역사에 대한 공유되어진 기억, 도덕적 능력을 계발해 가는 공동체 내의 주체들, 그리고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고려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와 더불어 라스무센이 관계의 재설정 작업을 말할 때, 그가 관심하는 것은 생명의 유기적 관계성으로서의 네트워크이다. 관계의 재설정 작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그물망에 관한 구체적 이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동의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공동체의 전지구적, 전우주적 그물망으로서의 균형적 관계성이다. 모든 생명 존재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의 질을 누리는 관계 상태라 할 것이다. 단순한 이론적 당위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다양한, 중층적 공간 내에서 경험되고 있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관계의 재설정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기비판적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신화를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신화는 마치 생명의 관계망을 가상적으로 빠짐없이 완성해 놓은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라스무센은 지구 생명공동체에 대한 추상화된 정보들이 실제적인 급진적 생명의 관계성을 모방하는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⁹⁾ 현대과학기술이 말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공간적 연결성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인위적이고, 편파적이며, 오프라인 권력구조에 철저히 속해 있음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대 과학기술이 제공

29) Larry L. Rasmussen, *Earth Community Earth Ethic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71.

하는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러한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최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적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지구적 생명공동체가 드러내는 급진적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인간 집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새로운 관계성과 공간구조들에 대한 자기비판적 척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기비판적 척도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적절한 방식대로 우리가 모든 존재에 관계되어 있다”³⁰⁾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신 상호의존적 관계성,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인식³¹⁾이 새로운 공간구조 창출의 비판적 성찰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실제 공간 읽기와 기독교윤리학적 시각

1.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 모순 읽기: 학교 공간과의 상호 연관성

이곳에서는 한국 사회 내 교회 공간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교회 공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교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관계성들이 어떠한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혀보려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필자는 한국 교회 공간의 모습을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국의 학교 공간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공간은 또 다른 공간의 콘텍스트로 중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30) James M. Gustafson,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Vol.1: 113.

31) 이정배, 『생태형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서울: 동연, 2010), 136.

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강한 영향 아래에서 위계 질서를 중심으로 한 서열 문화, 상급자와 하급자의 질서를 통한 복종의 문화,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배워야만 하는 자라는 구조를 통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온 특징들을 가져왔으며, 이 특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학교들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통적 유교 문화적 특성들은 한국의 교회와 결합하여 유교문화의 위계질서와 기독교 전통신학의 한 모습인 질서신학적 요소를 상호 강화시켜왔다. 또한 학교 공간에서는 위계적 질서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규격화된 삶, 다시 말해서 정형화된 삶의 관계방식들을 대량 생산해 왔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 내 유교윤리의 가장 커다란 폐해는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고, 다수를 위하여 당연히 소수를 버려야 한다는 유교적인 대의(大義)의 윤리”³²⁾라고 박충구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고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한국 교회가 책임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주요원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한국 교육 공간구조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교회 공간 구조 안에서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공간 구조가 공통적으로 발생해 내는 지배적 관계성들이 무엇인지 특징적으로 읽어내림으로써, 한국 교회 공간이 갖는 모순적 관계성들이 얼마나 중층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과연 한국 사회 내 교회는 새로운 도덕적 주체들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 내 교회의 공간 구조를 통해 형성된 공간 내 신체로서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국 사회의

32) 박충구, 『예수의 윤리: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길 찾기』(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2011), 74.

교회 공간을 학교 공간과 특징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로의 공간구조를 강화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주의적 신앙의 주도적 영향권 아래 놓여왔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과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강조해왔던 학교들은 교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획일화된 가치판단과 주어진 규범들에 순응하도록 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왔다.³³⁾ 특히나, 교회와 학교는 기존의 삶의 질서와 방식을 재단해 내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류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가치와 규범들을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정당화의 과정이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한국 내 학교와 교회의 지배적인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할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무비판적 학습의 내재화(internalization)에 대한 건강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간 내 신체로서의 도덕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할 과제가 긴급히 대두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제기식 교육’의 공간구조가 기존의 학교와 교회에 어떻게 연결되고 재배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르페브르는 공간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갈등을 “체험된 공간은 갈등의 표현을 금지”³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갈등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된 공간, 다시 말해서 기존 질서를 체계화, 합리화하는 ‘공간 재현’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갈등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는 공간 안의 모순을 공식화하는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모순은 인지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33) 공현 외, 『인권, 교문을 넘다』(서울: 한겨레에듀, 2011), 24-26.

34) 르페브르, 519.

다.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이해로는 사회적 모순과 악의 문제를 명명해 내는 일(naming)이 공간 내 갈등을 드러내는 역할과 밀접히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 내 신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국 교회의 공간구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거룩한 예배당과 강단을 다른 공간들과 엄격히 구분해내고, 그 곳에서 말할 수 있는 자들과 말할 수 없는 자들을 구분해 내는 원리가 작동해 온 경향이다. 어떠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검열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실재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사실 정의의 문제와 직결된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강요되는 공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내 원탁을 주로 배치하여 중심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 자유로운 용도로 변용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교회 구성원들 간 또는 교회 밖 시민들과의 열린 대화나 만남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교인들의 지속적 확장을 수용해낼 수 있는, 외형적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양적 공간의 확대가 우선시된다.

둘째, 위계적 질서의 유지가 두 공간의 목적으로 전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교와 교회의 본래적 목적으로서 사회변혁적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과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교인들을 세워내는 일과 달리 학교와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적전치”³⁵⁾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회의 전통적 질서신학적 상하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화시켜 교회가 규정한 신앙적 삶의 구조 속에 성도들이 흡수되게 하고, 학교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학생과 비학생의 구조로 나누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을 획일적 학습구조 속에서 위계적 평가구조로 재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때, 소위 명문학교, 소위 부흥하는 교회

35)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6), 394.

로 인정받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회의 본래적 목적은 사라지고 학교 자체, 교회 자체가 스스로 세운 위계질서의 정점에서 통제적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 자체가 성장하고 확대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고 만다.

콜라스의 제국에 대한 이해³⁶⁾를 목적 전치를 경험하는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확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공간을 끊임없이 확대, 재배치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작은 미자립교회들과의 위계질서적인 계층질서를 생산해내고, 소위 성장한 대형교회의 논리가 교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계들의 질서 그 자체가 되고 만다. 르페브르는 공간에 내재하는 폭력을 설명하면서, “권력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적 공간은 스스로의 내부에 규범과 구속을 보유”³⁷⁾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팽창과 확대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지배하는 공간 같지만 지배받는 공간이며, 그 이유는 교회의 공간적 실천이 삶을 규제하고 통제할 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⁸⁾ 한국 교회 공간의 탐욕적 확대가 단순히 그 공간을 채울 익명의 공간 내 신체들의 확보에만 관심이 커지는 구조를 강화시킨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팽창된 공간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소비적 자원으로써 공간 내 신체들이 요구되어지는 왜곡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보다 공통적인 요소는 자본주의적 통제와 순응의 논리의 구조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와 교회가 학생들의 존재, 교인들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현실이다. 자본의 교환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관계성들을 지지하고 있는지, 아

36) Colas, 6. 제국의 특징은 1) 끊임없는 팽창과 확대, 2) 중심과 주변의 위계질서적 계층질서 형성, 그리고 3) 제국 그 자체가 질서가 되는 것이다.

37) 르페브르, 510.

38) 르페브르, 511.

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가치”³⁹⁾에 따라 학생들과 교인들의 삶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 공동체의 대 사회적 책임성과 실천의 건강성보다 교회의 외적 교세와 재정적 규모에 따라 교회의 부흥을 평가하는 논리와 명문대 합격생의 배출 정도를 가지고 학교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논리는 자본의 집약적 축적이 새로운 식민지를 배출해내는 구조⁴⁰⁾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학교들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회 순응적 경제성장 일군을 대량생산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공간은 매우 통제적이고 감시적인 속성을 갖도록 배치된다. 학교의 교실들이 대부분 바둑판식 격자 배열을 하고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획되어진 학급과 학급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복도 뿐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대량생산식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습득한다. 또한 한국 사회 신도시 개발과 교회의 이전 확장을 꿈꾸는 지역교회들이 함께 배치되고, 교회가 필요한 곳 보다는 교회가 성장가능한 곳 인가를 따져 공간이 재배치되어 왔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배공간의 유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경제적 이익집단과 정치권력,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통한 도시계획이라고 르페브르가 지적할 때⁴¹⁾, 한국교회는 이러한 지배공간의 유지를 위한 도시개발과 늘 같은 흐름을 따라온 대표적 주자로 분류된다. 교회 뿐 아니라, 소위 명문학교들이라

39)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외적 가치는 일종의 수단에 의해 얻어지지만, 내적 가치는 언제나 특별한 실천을 통해 얻어진다. 2) 외적 가치는 눈에 보이며 썰 수 있지만, 내면적 가치는 실천에 의해서 판별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 3) 외적 가치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내적 가치는 공동체나 그 가치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속성이다. 4) 외적 가치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내적 가치는 삶의 실천에 배어 있다.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서울: 성서연구사, 1995), 145-146를 참고하라.

40) 르페브르, 17.

41) 노대명, 54.

불리는 많은 학교들이 한국의 도시계획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진해 왔다.

문제는 도시계획은 자본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배권력들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모순들이 결집된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 중심의 후기 자본주의 시대 속의 한국 교회 공간들이 자본 집약적 공간의 확대라는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라는 동질적인 공간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르페브르의 표현대로라면, “도구적이며 동질적 또는 동질화하는 공간 재현”⁴²⁾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동질적인 공간화가 구분과 차이를 제거한다는 점이다. 소비적, 상업적 삶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강요되나, 개개의 존재가 누려야 할 관계의 온전한 전체성은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르페브르의 이해를 빌리면, 이러한 현상을 동질적이면서 파편적인 공간의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동질화의 흐름 가운데 차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파편화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르페브르는 동질화의 주변부로부터 동질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동질화의 외부 요소로부터 일어난 움직임이 차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⁴³⁾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자본의 동질화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양식을 담아낸 하나의 모델로서의 공간을 상상하고, 생산해 낼 것인가?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간의 구획과 확장이 강요하는 동질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다른 한 측면으로는 완전하게 상응되지 않는 부분적 공간의 구획이 발생하기 때문이며,⁴⁴⁾ 그러한 구획 안에서 공간 내 신체들의

42) 르페브르, 506.

43) 르페브르, 530.

44) 이진경, 263-264.

한국 교회 공간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 완전하게 상응하지 않는 구획의 예를 찾아본다면, 주일 휴무하는 식당을 빌려 예배드리는 선교 중심의 ‘마하나임 교회’, 일명 카페 교회이면서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동네작은교회’ 등의 모델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도덕적 성찰과 실천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본, 과학기술,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공간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공간 내에서 공유되어진 연대와 삶의 방식, 일상적 삶의 구성과 재구성, 즉 “일상적 삶을 통해 스며드는 공간의 사회적/경제적 재구성”⁴⁵⁾이 자본주의적 삶의 획일성에 균열을 가하기 때문이다. 균열을 일으키는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공간으로서의 한국 교회의 모형적 실천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2. 기독교윤리학적 시각과 교회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한국교회가 창출해 놓은 기존의 공간 구조들, 사회 내 한국교회의 현재의 위치(관계설정)를 재배치하는 것은 교회 내 위계적 질서에 억눌린 관계들을 재구역화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재구역화, 공간의 재배치 작업은 종교의 기본 역할인 관계의 재설정 작업과 긴밀하게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동방정교회 신학자이자 신부인 크라이스사비히스(John Chryssavgis)에게 있어서, 종교는 “관계의 재설정”(a re-relating)이며 “새로운 재연합”(a re-binding)이기에 종교의 본래 목적은 서로 다른 존재들을 새롭게 다시금 관계시킴으로써 소외와 분리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것이 된다.⁴⁶⁾ 이를 위해서 기독교윤리학은 기존의 공간구조의 모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기독교윤리학적 시각은 ‘공간 내 신체’로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교회들은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시설을 교회로 건축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예안사랑의 뜰안,’ 노숙인교회인 ‘수원 행복한 집’ 등도 대안적 모형 교회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 2012년 8월 19일자, ‘카페·식당…개척교회는 변신 중’ 기사를 참고하라.

45) 노대명, 57.

46) John Chryssavgis,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44.

의 인간이해,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의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도덕적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세계와 관계성들이 불변의 고정된 관계성들이 아니라,⁴⁷⁾ 새롭게 읽혀지고 창조적으로 변혁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삶의 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덕적 주체들이 교회라는 공간 구조의 작용과 용법을 새롭게 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지배적 공간구조의 균열이 새로운 용법과 작용의 시작이라고 할 때, 교회라는 공간이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악에 대해 공동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이 될 수 있느냐가 교회 공간의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용법을 견지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책임적 실천의 차원에서 '신성한'(sacred) 공간⁴⁸⁾으로 주장되고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사회 가운데서 신성한 장소임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 가치의 실천, 공간의 용법과 작용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때 책임적인 차원에서 신성한 장소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 자본주의적 삶의 공간이 재단하고 규정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47)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관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르페브르의 '반복'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1) 절대적인 반복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A=A$ 를 읽을 때 우리는 A와 A는 동일하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첫 번째 A와 두 번째 A는 순서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2) 이러한 반복 속에 차이가 출현하게 된다. 연속과 연쇄 속에 맞닥뜨리는 사건이 바로 차이이다; 3) 반복 속에 발생하거나 생산된 차이가 시간의 골격을 이룬다. 르페브르의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고정된 관계, 위치, 지형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운동이 지속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앙리 르페브르, 정기현 역, 『리듬분석』(서울: 갈무리, 2013), 63-64를 참고하라.

48) 신성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존재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 실천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진다면 신성함이란 특징은 끊임없는 자기비판적 성찰과 실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관계 이해와 실천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독교윤리학의 책임적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전망적 결론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구조 이해, 전지구적 생명공동체 이해, 더 나아가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해이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해는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의 활동과 삶의 건강성의 문제일지라도 전 생명공동체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관계성(귀속감)”⁴⁹⁾이란 이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신비로움과의 대면이자 우주 전체와 맺고 있는 깊은 관계성과 소속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정배 교수는 우주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작업인 것과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계와 무관한 초월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에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 이러한 총체적 생명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르페브르가 공간이 각 사회가 생산하는 독특한 생산물 그 자체이면서, 또 다른 공간 생산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총체성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할 때 말하고 있는 공간의 매우 체험적이고, 지각적인 요소들을 ‘공간 내 신체’가 포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삶의 매우 구체적인 콘텍스트와 관계성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 것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포착된 관계성들과 구체적인 공간의 구조들은 기존의 공간 구조들과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을 수용해 내면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질적 요소들과의 관계재설정 작업을 통해서 이질적 요소들을 포괄하면서 한 생명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질적 요소들과의 관계재설정 작업은 늘 “사회적 모순관계들”(social contradictions)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며 공동

49) 이정배, 136.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영성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전체 관계성(귀속감), 둘째, 지속성, 그리고 셋째, 해방과 치유의 역사이다.

체적인 “도덕적 창조성” (moral creativity)⁵⁰⁾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교회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고,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어 성적 소수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초대할 수 있으며, 개종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타종교인들과의 지속적 대화의 장을 교회 공간에서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과 확장의 동력을 끄고,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열려질 수 있으며, 현실 분석의 구체적 공유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의 문제들을 품고 실천적으로 기도하는 운동과 같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기존에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요소들과 사람들을 먼저 끌어안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시도됨으로써 공간 내 관계의 재설정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즉, 이질적 요소를 끌어안기 위한 공간의 창출이 먼저가 아니라, 이질적 요소와의 결합 그 자체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지탱해 온 공간에 균열을 일으켜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⁵¹⁾ 왜냐하면 새로운 상호연관성에 관한 이해와 새로운 용법으로서의 실천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자비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매튜 폭스(Matthew Fox)는 자비란 “우리가 공유한 기쁨과 공유한 고난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우리가

50) Larry L. Rasmussen, “A Different Discipline,” *Union Quarterly Review* 53, no. 3-4: 48.

51) 이질적인 요소와의 결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누룩의 비유와도 연관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공공건물을 의미하는 ‘바실리카’와 어원적으로 연관되며, 예수 당시 바실리카는 의미상 로마제국 자체를 뜻하였다. 그렇기에 예수가 바실레이아를 언급할 때,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제국을 떠올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국은 누룩의 작용, 즉 발효와 부패를 통해서 지배적인 문화 속에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뒤엎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빈 마이어스는 대항문화적인 교회로서 ‘언더그라운드 교회’ 운동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빈 마이어스, 김준우 역, 『언더그라운드 교회: 예수의 철저한 사랑의 길을 따르는 방법』(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260-271을 참고하라.

공유한 상호연관성을 이끌어내는 것⁵²⁾이라고 선언한다. 생명공동체로서의 전우주적 공간인 교회는 자비의 공동체로서 차별과 배제를 통한 길들이기, 이질적 요소를 배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얻는 동일화, 규정과 획일화의 학습을 통한 조정과 통제적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V. 전망적 결론: 용법의 변화와 관계 재설정

구체적 삶의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공간 재배치, 재구역화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재)생산만이 아니라, 가치의 재생(실현)을 포함한다. 기독교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창출해 내는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가치의 실현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공간의 재구역화를 돕는 일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평화적, 평등적 사회적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악에 저항하기 위한 공동적 근거와 자원으로서 교회의 작용과 용법이 방향 지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통제와 기존의 것의 유지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 공간 이해를 넘어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존재들과 활동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생명공동체로서의 실천적 노력이 변혁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이와 같은 교회 공간의 용법 변화를 위해서 주요한 의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도덕적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할 교회의 실천영역을 필자는 새로운 관계성의 재정립이라고 보며, 그 중심에는 용서와 화해의 실천이 놓여있다고 여긴다. 이에 관해서, 생명 운동가 장일순 선생은 주객의 상대적 조

52) 매튜 폭스, 김영명, 문희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서울: 코나투스, 2010), 118.

건하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거나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김을 지적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하느님과의 화해요, 주와 객이 해소되고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의 실천”⁵³⁾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존의 교회 공간에 순응적인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공간 내 신체’로서의 구성원들이 내적인 가치교육을 통해 스스로 기존의 관계성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문을 시작하는 변화가 획일화된 공간의 용법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언제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기게 했던 교회 공간의 전통적 구조는 구성원들의 위치를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획일화된 관계성들을 받아들여 작동해 왔다. 그러나,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는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되어 규정된 수많은 관계성들(예를 들면, 문명/미개, 남성/여성, 성직자/평신도, 성숙/미성숙, 우월/열등, 자본가/노동자, 도시/농촌, 중심/주변부)을 넘어선 통합적 관계성을 지향한다.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통합적 관계성은 오로지 “주체와 주체들과의 관계 모델”⁵⁴⁾(subject-subjects model)로만 설명될 수 있다.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는 대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관계 재설정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적 실천 모델은 매우 급진적인 관계성을 향한 실천이며 교회 내 용법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관계성들에 관한 평가의 기준이 우월성, 효율성 생산성, 문명화라고 한다면, 주체와 주체들과의 통합적 관계성들은 언제나 행복, 복지, 돌봄, 건강과 기쁨으로 관계의 질이 측정되는 것이다. 대상으로서 남겨지기만 했던 ‘공간 내 신체’를 끊임없이 주체로 읽어내려는 삶의 방식이 공간 용법의 주요한 변화를 한국 교회 가운데 일으킬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모든 이질적

53) 장일순, 『나라 한알 속의 우주』(서울: 녹색평론사, 1997), 17.

54) Sallie McFagu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47.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여겨지는 다양한 공간구조의 창출이 건강한 작은 교회들의 연대를 통해
서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현 외(인권교육센터 '들'). 『인권, 교문을 넘다』. 서울: 한겨레에듀, 2011.
- 노대명.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2000:36-62
-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1995.
- 매튜 폭스. 김영명, 문희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서울: 코나투스, 2010.
- 로빈 마이어스, 김준우 역. 『언더그라운드 교회: 예수의 철저한 사랑의 길을 따르는 방법』.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2013.
- 박창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 박창구. 『예수의 윤리: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길 찾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 앙리 르페브르. 정기현 역. 『리듬분석』. 서울: 갈무리, 2013.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06.
- 이정배. 『생태영성과 기독교의 재주체화』. 서울: 동연, 2010.
- 이진경. 『근대적 시 · 공간의 탄생』. 서울: 그린비, 2010.
-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서울: 녹색평론사, 1997.
- Birch, Bruce C. and Rasmussen, Larry L. *Bible &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 Borgmann, Albert.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A Philosophical Inquir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Chryssavgis, John.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 Colas, Alejandro. *Empire: Key Concepts*. London, Cambridge: Polity Press, 2007.
- Crampton, Jeremy W. *The Political Mapping of Cyberspa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Gustafson, James M.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Vol.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McFague, Salli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 Rasmussen, Larry L. *Earth Community Earth Ethic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 Rasmussen, Larry L. "Drilling in the Cathedral." *Dialog* Vol. 42:3 (Fall 2003): 202-225.
- Taylor, Mark C. *The Moment of Complexity: Emerging Network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Toolan, David. *At Home in the Cosmo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1.

논문투고일: 2013. 10. 31.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국 문 초 록 •

한국 사회 내 생명의 존엄성보다도 강조되는 도구적 효율성의 공간구조, 자본주의 성공 신화를 강화하는 공간구조, 그리고 저항과 변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위계적 공간재편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모순들을 읽어내림으로써, 그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외는 다른 배치를 사고해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공간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사고활동, 가치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대다수의 공간구조들이 획일적이고 규정된 삶을 강요한다면, 그 공간은 매우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앙리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정의하기를, 공간은 하나의 생산물이며, 단지 대상으로서의 생산물이 아닌 이차적 자연으로서의 생산물임을 강조한다. 하나의 공간이 또 다른 의미의 공간구성의 콘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새로운 관계의 집합으로서 새로운 상호관계성을 열어가는 일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르페브르는 공간이란 단지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생산작용 자체이며, 공간은 단지 지배와 통제의 공간일 뿐 아니라, 연대와 소통, 기존의 구획을 가로지르는 재영토화와 또는 탈영토화가 일어나는 역동적 장이 된다. 이 작업들은 기존의 공간에 이질적이며 새로운 것들이 접속되어질 때 일어나는 가능성들이다. 또한 변혁적 공간과 억압적 공간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공간 안의 공간적 신체와 공간 내 신체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공간적 또는 공간 내 신체가 도덕적 주체로 새로운 관계성의 질문을 던져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주체들을 통해서 공간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며, '도구적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고, 또한 도덕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기비판적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비판적 작업의 근거가 될 신학적 기반은 전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이다.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악에 저항하는 공동의 근거와 자원으로 쓰여질 때, 교회는 새롭게 '신성한 공간'으로서 책임적으로 주장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공간 용법의 변화를 통하여 공간 자체의 특징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용법의 변화는 모든 존재가 주체로서 만나는 새로운 관계의 재설정 작업이다.

주제어: 공간, 앙리 르페브르, 관계성, 도구적 패러다임, 생명공동체, 교회
